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미·중 정상회담(習特會)에 대한 중국 내 평가

KIEP 북경사무소(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미·중 정상회담의 5대 성과
2. 주요 성과 평가
3. 향후 전망

주요 내용

- 2017년 4월 6~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習特會)을 개최
 - 양국 정상은 미·중 관계 및 국제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으로 5대 성과를 제시
 - △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 미·중 관계의 발전 방향과 원칙 확인 △ 협력의 우선 분야 설정 △ 4개 고위급 대화 채널 구축 △ 국제지역 문제의 소통과 협력 강화
 - 그 밖에 향후 미·중 관계를 위한 ‘최고위층 디자인’ 설정 및 미국의 ‘일대일로’ 참여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평가
- 양국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기존의 미·중 관계를 더욱 격상하고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대화채널 구축, 통상현안, 북핵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 [새로운 대화채널 구축] △외교안보대화 △전면경제대화 △법집행 및 인터넷안전 대화 △사회 및 문화 이슈 대화 등 4개 미·중 고위급 전면적 대화 채널의 구축을 합의
 - [통상현안] 미·중 간 통상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00일 계획’의 시행을 합의, 100일 계획에는 △ 무역불균형 △ 투자 △ 환율 △ 기초 인프라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미 재무부가 중국을 감시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하면서 양국간 환율을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존재
 - [북핵문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서는 미·중 간에 입장 차이만을 확인, 중국은 △ UN 안보리 제재 이행 △ 한반도 비핵화 △ 북한의 핵 활동 중지 △ 한·미 군사훈련 중지 △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등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
-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중 통상 마찰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100일 계획’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1. 미·중 정상회담의 5대 성과

■ 시진핑 국가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2017년 4월 6~7일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習特會)을 개최함.

- 회담 기간 양국 정상은 미·중 관계 및 국제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함.
- 시진핑-트럼프 간 전화 통화(4. 12)에서 시진핑 주석은 4개 대화채널 구축과 '100일 계획'을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라고 언급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중(訪中), 북핵 문제 및 시리아 문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주요 성과로 평가함.

■ [5대 성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적극적이고 풍부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트럼프의 연내 방중 합의와 미·중 간의 새로운 고위급 대화채널 구축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평가함.

- 『인민일보』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5대 성과로 △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 미·중 관계의 발전 방향과 원칙 확인 △ 협력의 우선 분야 설정 △ 4개 고위급 대화 채널 구축 △ 국제지역 문제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제시함.¹⁾

표 1. 미·중 정상회담의 5대 성과

5대 성과	주요 내용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 상호 이해와 양호한 협력관계 구축 △ 트럼프의 방중 초청 수락 △ 양국 정상간 회담·통화·통신 방식의 밀접한 연락 관계 구축
미·중 관계의 발전 방향과 원칙 확인	△ 양국 관계의 역사적 진전과 새로운 출발점에서 보다 양호한 관계 발전 동의 △ 협력 분야 확대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이해상충 관리
협력의 우선 분야 설정	△ 쌍방향 무역과 투자의 건강한 발전 △ 투자협정 협상 추진 △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 실무협력 모색 △ 법 집행과 인터넷안전 분야 협력 심화
4개 고위급 대화 채널 구축	△ 외교안보대화, 전면경제대화, 법 집행과 인터넷안전대화, 사회와 문화 이슈대화
국제지역 문제의 소통과 협력 강화	△ 한반도 핵문제 등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다층적 협력 전개 △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에 공헌

자료: 「图解: 习近平访问芬兰并赴美举行中美元首会晤成果单」(2017), 『人民网』, (4월10일)

1) 「图解: 习近平访问芬兰并赴美举行中美元首会晤成果单」, <http://politics.people.com.cn/n1/2017/0410/c1001-29200446.html> (검색일: 2017. 4. 10).

-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은 미·중 양국이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우선협력 분야를 설정하였으며, 특히 미국에 ‘일대일로’ 참여를 요청한 점을 높게 평가함.²⁾
 - 시진핑 국가 주석은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우선 협력 분야로서 △ 투자협정 협상 추진 △ 쌍방향 무역과 투자의 건강한 발전 △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분야 실무 협력을 강조
- 이외에 △ 민감 분야에 대한 처리와 이견의 건설적 관리 △ 중요한 국제문제(마약, 아동 매매, 자금 세탁, 조직범죄, 인터넷안전 등)에 대한 상호 소통과 협력 △ 지역의 쟁점에 대한 소통³⁾ △ G20, UN, 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등을 성과로 제시함(중국 외교부).

■ [미·중 간 Top Design 설정] 시진핑과 트럼프의 미·중 정상회담을 새로운 미·중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최고위층의 디자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

- 『인민일보』 사설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정상회담에서 향후 미·중 관계 발전을 위한 ‘최고위층 디자인’을 설정한 것으로 평가함.⁴⁾
 - △ 새로운 출발선 상에서 미·중 관계 발전을 위한 초석 마련 △ 고위급 교류 및 대화 채널 구축 합의 △ 향후 중점 협력 분야(무역과 투자,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 지역 문제 등)와 노력 목표의 확립 △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타결 및 이견에 대한 건설적 통제 방식 등을 합의⁵⁾
 - 『신화사』(新华社) 사설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4개 대화 채널을 구축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미·중 관계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설명⁶⁾
- 까오쑤이(高祖贵) 중공중앙당고 국제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드러난 성과는 다소 미미했으나, 양국 수뇌부의 만남 자체에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향후 양국관계 발전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한 교류의 장이었다고 평가함.⁷⁾

■ [미국의 ‘일대일로’ 참여 가능성]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미국 측의 성과가 컸던 회담이었으며, 중국 측에서는 미국의 ‘일대일로’ 참여 가능성을 제시한 것을 중요한 성과로 평가함.

- 리웨이(李巍) 중국인민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측보다 미국 측의 성과가 더 컸다고 평가하고, 특히 ‘100일 계획’은 미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특별히 기대했

2) 「把中美关系的大厦建设得更牢更高更美」, <http://world.people.com.cn/n1/2017/0409/c1002-29197316.html>.

3)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북한 문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되었으나, 중국 측에서는 한반도 핵 문제만을 언급함.

4) 「人民网评：“习特会”为中美两国关系进行“顶层设计”」, <http://opinion.people.com.cn/n1/2017/0408/c1003-29196680.html> (검색일: 2017. 4. 9).

5) 中美元首对表 传递积极信号 (望海楼), <http://opinion.people.com.cn/n1/2017/0408/c1003-29196466.html> (검색일: 2017. 4. 9).

6) 「新华社评论员：在新起点上推动中美关系取得更大发展」, http://news.xinhuanet.com/world/2017-04/08/c_1120774125.htm (검색일: 2017. 4. 9).

7) 2017년 4월 9일 중국인민대학교 발전전략연구원과 국제관계학원이 공동주최한 ‘시진핑 방미 이후 미·중 관계 전망’ 세미나 발표 내용을 정리함.

던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함.⁸⁾

- 반면 중국 측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명확한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특히 시진핑 주석이 미국 측에 요청한 양자투자협정(BIT)에 관한 논의와 미국의 '일대일로' 참여에 대한 특별한 확답이 없었다고 분석
- 왕원(王文) 중국인민대학교 충양(重陽)연구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일대일로'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5월 14일 개최 예정인 '일대일로' 포럼에 미국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함.⁹⁾
- 2016년 이후 미국 내 싱크탱크(Think-tank)를 중심으로 미국의 일대일로 참여 필요성이 강도 높게 제기되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고문들 역시 미국의 '일대일로' 참여를 주장
- 자오밍하오(趙明昊) 중공중앙 대외연락부 당대세계연구센터 부연구원도 '일대일로' 전략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평가

2. 주요 성과 평가

가. 미·중 간 고위급 대화채널 구축

■ [기존의 주요 대화 채널] 양국은 미·중 정상회담,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S&ED)와 미·중 통상무역위원회(JCCT) 등을 통해 통상 현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음.

- 현재 양국은 105개 대화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¹⁰⁾ 그중 경제 분야에서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와 미·중 통상무역 공동위원회가 중요한 협력 및 협상 창구역할을 담당해왔음.
-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S&ED)는 경제는 물론 정치, 안보,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경제대화(SED)와 고위급 대화(SD)를 합쳐 대화의 레벨과 의제를 격상·확대시킨 양국 최고위급(부총리급) 연례 회담으로 2009년(1차)부터 2016년까지 8차 회의가 개최됨.

※ 미국의 국무부와 재무부 - 중국의 부총리(왕양)와 국무위원(양제츠)

- 미·중 통상무역공동위원회(JCCT)는 양국간 통상 및 산업 전반에 관한 대표적인 고위급 협력 채널(정부인사 이외에 기업인, 각종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경제·통상 협력 채널)임.
- 미·중 통상무역공동위원회(JCCT)는 1983년 미 무역대표부(USTR)와 중국 상무부의 전신인 대외경제

8) 주 7과 동일.

9) 전화 면담(2017. 4. 10).

10) 「中美四个对话机制很重要 BIT将推动经贸大发展」, http://fangtan.china.com.cn/2017-04/11/content_40600113.htm(검색일: 2017. 4. 11).

무역협작부가 양국간 무역 현안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포럼(consultative mechanism) 형식으로 출발, 2003년에 양국 정상(부시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 합의로 미국의 상무부와 USTR, 중국의 부총리급 회의로 격상

- 이외에도 부총리급 대화 채널로서 인터넷안전, 사법집행 정보교류, 인터넷안전 조사 등을 논의하는 '미·중 인터넷 범죄 소탕과 관련 업무 고위급 연합대화'와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 부녀, 청소년 교류 분야 협력의 장으로서 '미·중 인문교류 고위층 협상회의'를 유지해 왔음.

표. 2 미·중 S&ED와 JCCT 개요

협력채널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S&ED)	미·중 통상무역 공동위원회(JCCT)
설립 시기	- 2006년 9월 설립 제안(부시-후진타오) - 2009년 4월 고위급 양자 포럼으로 출발 - 8차 대화(2016. 6. 6~7)	- 1983년 설립 - 27차 회의(2016. 11. 21~23)
주요 기능	- 미·중 간 최고위급 대화 채널 - Two track(경제 및 전략대화)으로 운영	- 경제 관련 문제의 협상 및 해결 플랫폼
수장	- 미 국무부·재무부 중국 부총리(왕양)·국무위원(양제츠)	- 미 상무부·USTR-중국 부총리
회의 방식	- 전략대화(정치, 안보)와 경제대화(경제, 통상, 국제금융 이슈)의 Two-track	- 정부, 기업, 학계 참여 - 기업가 라운드 테이블, 포럼 개최
주요 경제 이슈	- 거시경제정책 및 구조조정, 무역 및 투자 강화,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 산업정책,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구조적 이슈, 철강, 농업,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 기술, 보험, 관광, 환경, 통상법률, 무역 구제, 통계 문제 등 협의

자료: 저자 정리.

■ [4개 고위급 대화 채널 구축] 중국 내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상징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운데 미·중 간 새로운 고위급 대화채널 구축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함.

- 외교안보대화(the diplomatic and security dialogue), 전면경제대화(the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 법집행 및 인터넷안전대화(the law enforcement and cyber security dialogue), 사회 및 문화 이슈 대화(the social and cultures issues dialogue) 등 4개 미·중 고위급 전면적 대화(US-China Comprehensive Dialogue) 채널 구축을 높게 평가함.¹¹⁾
- 기존의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S&ED)에 비해 새로운 대화에서는 보다 구체화되고, 참여 범위도 확대됨.

11) 「王毅谈习近平主席访问芬兰并赴美国举行中美元首会晤」, <http://www.fmprc.gov.cn/web/zyxw/t1452310.shtml>.

-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를 양분하여 외교안보대화(중국 측의 양지예츠 국무위원, 미국 측의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와 전면경제대화(중국의 왕양 부총리와 미국 측의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 참석)를 설립하고,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 1차 대화를 개최
- 법 집행 및 인터넷안전 대화는 기존의 ‘미·중 인터넷 범죄 소탕과 관련 업무 고위급 연합대화’를 확대하고, 사회 및 문화 이슈 대화는 기존의 ‘미·중 인문교류 고위층 협상회의’를 확대한 것으로 판단됨.

표 3. 미·중 간 4개 고위급 대화 채널

대화 채널	대화 파트너(예상)	주요 기능/기존 관련 대화 채널
외교안보대화 (the diplomatic and security dialogue)	미 국무부·국방부 - 국무위원(양지예츠)	- 외교, 안보, 반테러, 지역 안보 -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분할 - 中美战略对话(2005. 8~2008. 12, 6차 대화 개최) * 미 국무부 차관-중국 국무위원
전면경제대화 (the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	미 재무부·상무부 - 중국 부총리(왕양)	- 거시경제정책 및 구조조정, 무역 및 투자 강화,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 미·중 전략대화의 분할 - 中美战略经济对话(2006. 12~2008. 12, 6차 대화)
법집행 및 인터넷안전 대화 (the law enforcement and cyber security dialogue)	미 사법부·국토안전부 - 중국 공안부장(국무위원)	- 인터넷안전, 핫라인 구축, 인터넷안전 보호, 법집행 정보교류 및 능력 제고, 인터넷 안전 조사 등 논의 - 미·중 인터넷 범죄 소탕과 관련 업무 고위급 연합대화(2015년 12월 개시, 2016년 6월 14일 2차 회의 개최) * 미 사법부·국토안전부-중국 공안부(국무위원)
사회 및 문화 이슈 대화 (the social and cultures issues dialogue)	미 국무부 - 국무위원(류옌둥)	-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 부녀, 청소년 교류 등 논의 - 미·중 인문교류 고위층 협상회의(中美人文交流高层磋商全体会议, 2010년 5월 성립, 2016년 6월 7차 회의 개최) * 미 국무부 - 중국 국무위원(류옌둥)

자료: 저자 정리.

- 아울러 시진핑은 방미 기간 중 알래스카 주와 플로리다 주 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지방 정부간 협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미·중 간의 공식적인 지방협력 채널은 2013년 ‘미·중 지방간 무역투자 협력 작업반(Joint Working Group for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의 형태로 출범한 이후, 2016년 말 현재 중국의 25개 성·시와 미국의 7개 주가 참여하는 협력 채널이 구축되어 있음.

표 4. 미·중 간 지방 협력 채널 현황

설립 일시	참여 지방 정부		관련 정부 부처	
	미국	중국	중국	미 국
2013. 4. 10	캘리포니아	장쑤, 네이멍구, 상하이, 산둥, 광둥, 충칭, 허베이 (7개 성·시)	중국 전자기기 상품 수출입 상회	북 캘리포니아주: Bay Area Council 남 캘리포니아주: Los Angeles Regional Export Council
2013. 12. 23	시카고	베이징, 상하이, 톈진, 칭다오, 선양, 항저우, 우한, 청두 (8개 시)	상무부 투자촉진국	World Business Chicago
2014. 6. 5	아이오와	베이징, 지린, 랴오닝, 헤이룽장(4개 성·시)	중국 식품·토산물 및 축산물 수출입 상회	Iowa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2014. 9. 9	텍사스	톈진, 장쑤, 푸젠, 산둥, 쓰촨 (5개 성·시)	중국 대외 청부프로젝트 상회	Texas Economic Development and Tourism Division
2015. 8. 25	미시간	저장, 후베이, 광둥, 충칭, 쓰촨(5개 성·시)	중국 전자기기 상품 수출입 상회	Michigan Department of Talent and Economic Development
2015. 9. 22	워싱턴	랴오닝, 상하이, 후난, 광둥, 쓰촨, 산시(陕西)(6개 성·시)	상무부 대외무역발전국	Washington Department of Commerce
2016. 4. 11	뉴욕	베이징, 상하이, 장쑤, 저장, 장시, 윈난 (6개 성·시)	상무부 대외무역발전국	New York Empire State Development

자료: 「中美省州合作机制一览」商务部 홈페이지, <http://mds.mofcom.gov.cn/article/zmsz/gzz/201604/20160401297884.shtml>(검색일: 2017. 3. 14).

- 수거(苏格)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원장은 4개 대화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안보, 군사, 문화 등 다양한 교류 창구를 조성하였다고 평가함.¹²⁾
- 미·중 간에는 정상 대화 → 정상 대화 아래 차위급 고위층 대화(高层次对话) → 4개 대화 아래에 다양한 대화 채널 구축(陶文钊,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
- 예컨대 경제 분야의 경우 전면경제전략대화 이외에 기존의 미·중 통상무역 공동위원회((US-China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JCCT, 联合商贸委员会), 경제공동위원회(Sino-U.S. Joint Economic Committee)도 계속 추진될 것이나, 이 채널은 4개 대화보다는 1단계 낮은 직급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
- ※ 미·중 경제공동위원회(中美联合经济委员会, Sino-U.S. Joint Economic Committee)는 1979년 덩샤오핑-카터 간 성립, 1980년 9월 1차 회의 개최 이후부터 2007년까지 17차 장관급 회의 및 3차 차관급 회의 개최, 미·중 전략경제대화 설립 이후에는 미·중 전략대화 성과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음.

12) 「解读中美元首会晤成果及亮点」, <http://ft.people.com.cn/directList.do?fid=15834>(검색일: 2017. 4. 9).

나. '100일 계획' 추진 합의

■ ['100일 계획' 추진 합의 '100일 계획'에 대해 '미국의 체면 세워주기'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중국의 대미 흑자가 축소되고, 중국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함.

- 정상회담 직후 중국 정부는 로스(Wilbur Ross) 미 상무부 장관이 언급한 '100일 계획'¹³⁾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 100일 내에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확대를 통한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하는 협상이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

- 다만 중국 언론은 미 백악관의 뉴스 브리핑을 인용하여 100일 계획이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새로이 구축된 전면경제대화를 통해 100일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¹⁴⁾

■ [주요 예상 분야] 중국 내 전문가들은 '100일 계획'에서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확대,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서비스 분야의 개방 등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비스 분야의 상호 개방, 미·중 BIT 협상 추진,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관련 분야의 상호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함.

- 시진핑 주석의 우선 협력 분야: △ 투자협정 협상 추진 △ 쌍방향 무역과 투자의 건강한 발전 △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분야 실무 협력을 강조

- '100일 계획' 내용(예상): △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 등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완화 △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 중국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 △ 미·중 간 투자 분야 상호 개방¹⁵⁾

- 황런웨이(黃仁偉) 상하이사회과학원 부원장은 '100일 계획'에 포함될 과제로 △ 무역불균형 축소(미국산 천연가스 및 경질유 수입 확대, 미국의 대중국 하이테크 제품 수출 제한 완화, 미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 등) △ 투자문제(중국의 대미 투자 확대, 중국 서비스 개방을 통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 확대) △ 환율 문제 △ 기초 인프라 협력 확대 (미국의 AIIB 참여, 미국 인프라 시장의 대중국 개방) 등을 제시

- 미·중 통상관계에서 '100일 계획'이 가져올 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특히 중국의 대미 수입 증가 및 대미 투자 증대가 예상됨. 대미 수입 증대는 주로 △ 농산품 △ 하이테크 제조업 제품 △에너지·자

13) Briefing by Secretary Tillerson, Secretary Mnuchin, and Secretary Ross on President Trump's Meetings with President Xi, of China,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4/07/briefing-secretary-tillerson-secretary-mnuchin-and-secretary-ross>.

14) 「习特会成果一览 中美将进入100天谈判期(组图)」, <http://china.dqtimes.com/news/201704/156863.html>(검색일: 2017. 4. 9).

15) 「中美贸易“百日计划”可能包含啥?」, <http://finance.sina.com.cn/zl/hkstock/2017-04-10/zl-ifyecea1811383.shtml>(검색일: 2017. 4. 10).

원 부문에서의 수입 증대가 예상되며, 투자에서는 특히 국유기업의 대미 투자 증대가 중대한 변화로 예상(리웨이, 중국인민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연구원)

- 중국 상무부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100일 계획’에 대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방안일 뿐이라며 중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을 늘림으로써 무역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고 평가¹⁶⁾(전화 면담, 2017년 4월 10일)
- 리커창 총리와 방중한 미 상하의원과의 면담(4. 10)에서 북한 핵문제 이외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수 해제, 중국 측은 중국산 닭고기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 공급과잉 문제, 하이테크 제품의 대중 수출 금지 해제, 미·중 BIT 협정의 우선 추진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¹⁷⁾

표 5. ‘100일 계획’의 양국간 주요 협력 분야(예상)

협력 부문		구체 협력 내용
농·축산업	미국 농산물 수입 증대	미국 주요 농산물 생산지(플로리다주,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등)와 농산물 무역 확대 임업 관련 워싱턴주와 협력 확대
	축산물 무역 장벽 완화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자원·에너지	미국 전통 자원 생산 지역과의 무역 협력 강화	미국 텍사스주로부터 원유 수입 확대 미국 천연가스 수입 확대 협력
	미국 북부 지역과 에너지 무역 기반 확충	미국 신흥 자원 생산 지역(노스 다코타주)의 인프라 및 운송 관련 투자 협력 미국 항구 및 항운 시스템 투자 협력
서비스업	서비스업 대외 개방 확대	△ 관광 △ 소프트웨어 △ 산업 서비스 △ 교통 운수 △ 교육 △ 양로 △ 금융 등 개방 확대 △ 문화 산업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 및 문화상품에 대한 수입 확대

자료: 「中美贸易“百日计划”大猜想」(2017), 『腾讯财经』, (4월12일)

다. 환율조작국 지정 회피

- [환율 조작국]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하여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언급을 회피하였으나, 환율조작국 지정 마찰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16) 전화 면담(2017. 4. 10).

17) 「美国议员带“重磅”问题而来 李克强——坦诚回应」, http://www.ce.cn/xwzx/gnsz/szyw/201704/12/t20170412_21889785.shtml (검색일: 2017. 4. 11).

- 느무신 미 재무부 장관은 “조만간 있을 연례 통화 보고서 발표 이후에 언급하겠다”라고 모호한 입장을 밝힘.
- 또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4월 12일 월스트리트 저널(Wallstreet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위안화에 대해 몇 달간 환율조작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최근 미 달러화의 과잉 강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함.
- 미·중 간의 ‘100일 계획’ 추진 합의,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적자 원인 및 무역장벽 조사 관련 행정명령(3. 31)¹⁸⁾ 등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함 (주젠팡).
- 미·중 정상회담 이후 위안화의 대미 달러 고시 환율도 279bp 하락하면서 안정됨.
※ 2017년 4월 7일 6.8949달러 → 2017년 4월 13일 6.8651달러

■ [감시대상국 지정] 미 재무부는 2017년 4월 15일 발표한 보고서¹⁹⁾에서 중국을 일본, 한국, 대만,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감시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다시 지정함.

-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the ‘2015 Act’)의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양자간 협상을 명시한 Section 3004 of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함.
- 보고서에서는 △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으로서 2016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은 3,470억 달러로 전년대비 5% 감소한 데 그쳤고 △ 경상수지/GDP 비중은 2015년에 2.8%에서 2016년에 1.8%로 낮아지고 △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방지하기 위한 단방향 시장개입이 있었다고 평가함.
- 중국은 3개 조건 중 1개 조건만을 충족하고 있으나, 감시대상국에 지정되면 최소한(at least) 두 번 이상 유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국을 다시 지정함.

18)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Regarding the Omnibus Report on Significant Trade Deficits,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3/31/presidential-executive-order-regarding-omnibus-report-significant-trade>.

19) REPORT TO CONGRESS: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international/exchange-rate-policies/Documents/2017-04-14-Spring-2017-FX-Report-FINAL.PDF>.

표 6. 미 재무부의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기준 항목별 평가

구분	대미 무역수지 (억 달러)	정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규모 (GDP 대비 비중, %)	3년간 변화 (GDP 대비 비중, %p)	규모 (억 달러)	순매수 규모 (GDP 대비 비중, %)	순매수 규모 (억 달러)	지속적 개입 여부
중국	3,470	1.8	0.2	1,960	-3.9	-4350	x
일본	689	3.8	2.9	1,860	0.0	0	x
독일	649	8.3	1.5	2,860	·	·	x
멕시코	632	-2.7	-0.2	-280	-0.5	-60	x
이탈리아	285	2.8	1.8	510	·	·	x
한국	277	7.0	0.8	990	-0.5	-70	x
인도	243	-0.5	2.1	-110	0.4	100	x
프랑스	158	-1.2	-0.3	-300	·	·	x
스위스	137	10.7	-0.8	710	10.0	660	o
대만	133	13.4	3.4	710	1.8	100	o
캐나다	112	-3.3	-0.1	-510	0.0	0	x
영국	-11	-5.1	-1.1	-1,380	0.0	0	x
유로 지역	1,257	3.4	1.2	4,030	0.0	0	x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April 14, 2017),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환율불균형 문제 제기 가능성] 환율조작(currency manipulate) 문제가 환율불균형(currency misalignment, 汇率失调) 문제로 대체되었을 뿐, 환율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됨.

※ 미 상무부 장관 윌버 로스(Wilbur Ross)에 의하면 '환율불균형'은 한 화폐의 환율이 정상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함. 환율전쟁이 한창이던 2006년 찰스 그래스리(charles grassley) 미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맥스 보커스(Max Baucus) 상원의원이 중국의 환율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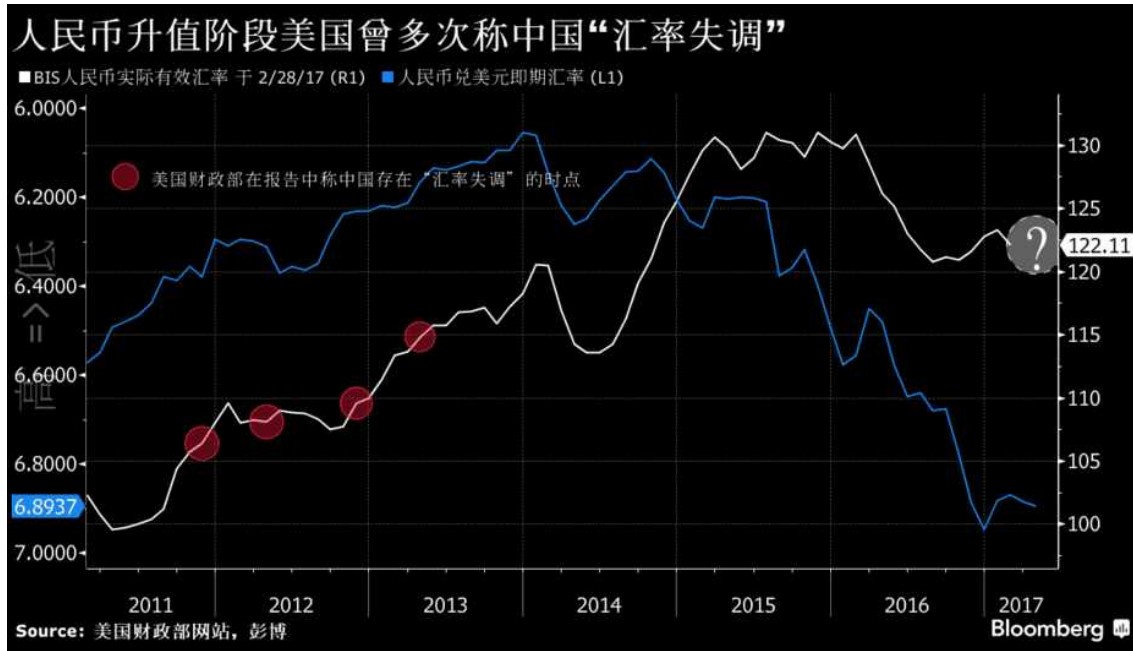
※ 2007년부터 제출된 법안에서 환율 조작(manipulation) 대신에 불균형(misalignment)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해당국의 의도(intent)와 상관없이 환율이 펀더멘털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범위가 확장됨.²⁰⁾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연구원 장밍(张明)은 "미국의 관심은 이미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나 시장화 정도에 있지 않다. 오히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환율불균형'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무역 문제이다"라며 경계함.
- 봉황망에서 "미국 재정부가 4월 중순에 발표할 보고서에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코 미국의 환율 문제에 대한 시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함.

20) Claude Barfield(2010), "Congress and Chinese Currency Legislation."

※ 미 재무부는 위안화가 절상되었던 2011~13년 보고서에서 중국 위안화가 환율불균형 상태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그림 1.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추이



자료: 「重提中国“汇率失调”?降低“汇率操纵国”门槛?」, <http://www.ieforex.com/ggkh/20170413/1319471.html>(검색일: 2017. 4. 13).

라. 북핵 문제

■ [북핵 문제]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 간에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관계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함.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히고, △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문제의 협상을 통한 해결 △ 중국의 UN 안보리 제재 이행 △ 중국의 쌍궤병행(雙軌并行: 한반도 비핵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쌍잠정(雙暫停: 북한의 핵 활동 중지, 한·미 군사훈련 중지) △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 등 중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발표함.
- 반면 미 백악관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북한 무기 프로그램 위협의 긴박성에 상호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노력하고, UN 안보리 제재 이행을 확인하고, 북한의 불법무기 포기과 현안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없었다고 언급(틸러슨)
- ※ 아울러 ‘중국과 (북핵 문제를) 협력하면 좋겠다’면서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

■ [미·중 간 이견 차이 재확인]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 입장 차이를 재확인한 데 그친 것으로 평가함.

- 김경일 북경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이 입장 차이를 확인한 데 그친 것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대선 시점까지 한반도의 긴장 관계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함.²¹⁾
- 특히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폭격은 북핵 문제에 대한 시진핑의 강력한 입장을 시사한 것이며,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우려함.
- 판지서(樊吉社),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전략연구실 주임은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더 이상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앞으로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북한에 대한 반격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어 목적이라 판단함.

3. 향후 전망

■ [미·중 통상 마찰 압력 완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미·중 통상 마찰과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 황런웨이(黃仁偉) 상해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미·중 관계가 U자형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함.
- ※ 트럼프 출범이후 미·중 긴장관계가 고도화되었으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완화되는 전기를 마련
- 주젠팡 중신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무역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중 간 인프라 건설 및 기술협력 가능성이 증대되었다고 분석²²⁾

■ 단기적으로 중·미 간에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양국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으로 미·중 통상마찰은 지속될 것임.

- 저우미(周密) 상무부연구원 주임은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단기적으로는 미·중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나, 중장기적으로 미·중 간 통상마찰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²³⁾

21) 전화 면담(2017. 4. 10).

22) 전화 면담(2017. 4. 10).

23) 전화 면담(2017. 4. 10).

-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측의 성과로 제시되고 있는 △ 새로운 대화 채널 구축 △ 미국의 ‘일대일로’ 참여 가능성 △ 미국 요청으로 합의된 ‘100일 행동 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KIEP**

작성자: 양평섭 북경사무소장/선임연구위원 (psyang@kiep.go.kr)